

전문 시스템으로 전주 한지의 경쟁력 '입증'

전통문화전당, '전주한지 수의' 시험분석 통한 품질보증 나서

전주 한지로 만들어진 수의의 품질보증을 위해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시험분석에 나선다.

(제)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주 한지로 만든 수의의 우수한 품질 확보와 다른 제품과의 변별력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주 한지 수의' 품질 보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한지 관련 국내 유일한 시험분석기관으로, 2013년 KOLAS(한국인정기구)를 통해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지난 6년간 한지 시험 분석과 품질 검사를 수행하며 전주 한지의 특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전주 한지 수의 사업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주한지산업협동조합, 재향군인회 상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품질보증서 발급은 상호회, 장례식장 등 장례 관련 업체가 자사로 납품되는 한지수의 원단에 대해 섬유 조성, 제조 방법, 생산지 확인 등 품질 검증을 의뢰하면 이뤄진다.

센터는 한지 생산유통관리 기준인인 '전주 한지 지리적 단체표준'에 따라 닥섬유 함유량 등 1차 현장 검증 작업을 하고, 기타 한지 수의 기능에 필요한 물성을 시험 분석하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2차 검증에 나선다.

전주 한지 지리적 단체표준은 2010년 8월 전주한지산업협동조합에서 등록된 단체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KS)과 같이 법에 따라 규정된 관련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전주 한지로 만들어진 수의의 품질보증을 위해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시험분석에 나선다.

센터는 이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마친 한지수의 원단만 최종적으로 전주 한지 수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험·분석 작업을 통해 센터는 저급의 한지 수의 제품 유입을 막고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 확보, 더 나아가서는 전주한지의 우수한 특성을 지속해서 유지·발전시켜 나갈

다는 복안이다. 김선태 원장은 "앞으로 한지 수의뿐 아니라 다른 한지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 적용해 나가도록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한지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화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어머니 품으로 노래하다'

국립민속국악원, 내달 15일 창극 '지리산' 무료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해방 전후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창극 <지리산>을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류기형 예술감독이 연출과 각색을, 작곡 황호준, 안무 국립무용단의 장현수, 조명디자이너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최형우 등 국내 최정상의 제작진이 참여하여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창극 <지리산>은 지리산 속 오래된 외운 마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지리산의 모든 역사를 지켜봐 온 노고 할매의 현신인 천년송에 의지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외운 마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마을 총각 길상과 처녀 반아가 있다.

일제강점기 말 일제의 앞잡이(오덕술)에 의해 길상과 반아는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고 마을은 혼란에 빠지며, 해방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마을로 돌아온 길상과 반아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결혼해 딸(지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 빨치산이 마을로 숨어들고 이를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와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다.

창극 <지리산>은 이러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상처 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관객



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과 해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할 것이다.

공연은 8월 15일 오후 3시,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후 3시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전화(063-620-2324~5) 및 카카오톡(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namwon.gugak.go.kr>)이나, 전화(063-620-2327)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평범한 샐러리맨 출신의 17년 축구인생 이야기

前 전북 현대 단장 이철근 '서류 봉투 속 축구공을 꺼낸 남자' 발간

이철근 전 전북 현대 단장이 자전적 에세이 집 '서류 봉투 속 축구공을 꺼낸 남자'를 펴냈다. 한국 축구 행정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2003년 전북 사무국장이 된 후 2017년 2월까지 15년 동안 구단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1995년 울산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2년을 더하면 도합 17년을 프로축구계에 헌신했다.

저자는 지방의 중소 구단이던 전북 현대를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으로 발돋움시켰고,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를 축구 도시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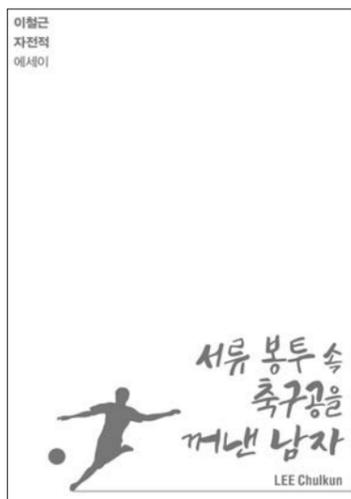
이 책에는 저자가 보낸 축구인생이 그대로 녹아있다.

경기인 출신이 아닌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저자가 축구와 인연을 맺고, 한국 최고의 축구 행정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축구 행정가가 된 다음에는 더 좋은 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저자의 에피소드가 책 속에 가득하다.

한국에 좀 더 제대로된 축구 행정가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축구가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년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고뇌하며 저술했다.

축구 행정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한 구단을 아시아 최고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알 수 있다. 292쪽, 1만4900원, 베스트일레븐 /뉴스시



전주시, 전통문화 역량강화 위한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개최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문화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30일 전주한옥마을 우전재에서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전통문화도시 역량강화를 위해 조선시대 왕실 문화에 대해 배우고 전주시가 만들어 나아가야 할 문화도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장이 강사로 나서 '조선왕실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학위자로 국립고궁박물관장을 역임하고 지난 1월부터 국립무형유산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뛰어난 국내 문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다양한 조선왕실 문화와 전주가 간직한 다양한 조선시대 유산 등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 분야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와 예

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주는 천년 역사의 중심으로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자원을 계승하고 보존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사람의 도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선진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을 배우는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한 이번 아카데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이자 글로벌 문화도시인 전주의 문화도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과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